

2018 농식품 해외시장 맞춤형조사

No. 1805-09

품 목 : 초콜릿(Chocolate)

국 가 : 캄보디아(Cambodia)

Contents

I. 국가 정보 및 시장통계	3
1. 수출환경 및 경제지표	5
2. 식품산업 현황	10
3. 수출입통계 및 생산통계	12
II. 시장 트렌드	18
1. 정책 동향	20
2. 소비자 트렌드	21
3. 제품 트렌드	23
4. 유통 트렌드	25
III. 통관 및 제도	33
1. 통관 및 검역	36
2. 인증정보	50
3. 라벨링	54
4. 위생요건	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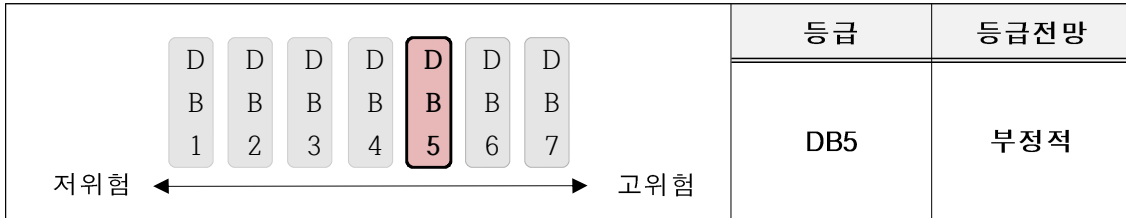


I. 국가 정보 및 시장통계

1. 수출환경 및 경제지표
2. 식품산업 현황
3. 수출입통계 및 생산통계

1. 수출환경 및 경제지표

□ 국가 위험등급 및 전망)



자료: 「Country Insight Snapshot Cambodia March 2018」, Dun & Bradstreet, 2018.7.13.

□ 주요 전망

구분	세부내용
긍정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교적 저렴한 노동력을 보유하며 태국, 라오스, 베트남과 인접해 동남아시아 시장으로의 빠른 진출이 가능한 전략적 위치 - 해양 탄화수소를 비롯한 수많은 천연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음
부정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력과 인프라가 부족하며,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투자환경의 개선이 필요함 - 올해 7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주요 증여국인 EU, 일본, 호주,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됨

자료: 「Country Insight Snapshot Cambodia March 2018」, Dun & Bradstreet, 2018.7.13.

1) D&B의 'DB' 위험 지표는 한 국가에서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위험에 대한 상대적인 국가 간 평가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국가 차원의 요인들이 2년의 기간에 걸쳐 수출 결제 및 투자 수익에 대한 예측가능성에 미치는 위험을 나타냄. 'DB' 위험 지표는 국가별 위험 카테고리로서 다음의 4가지 종합 지수로 구성됨. ▲ 정치위험, ▲ 상업위험, ▲ 거시경제위험, ▲ 외부위험. 첫째, 정치위험은 국내외 안보 상황, 정책 역량 및 일관성, 국가가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타 요인을 포함. 둘째, 상업위험은 계약의 준수 가능성, 사법능력, 규제투명성, 체제의 부패 정도, 비즈니스 환경이 상업 거래 이행을 용이하게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타 요인을 포함. 셋째, 거시경제위험은 물가상승률, 재정적자, 통화공급증가, 국가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와 비즈니스 기회에 상응하는 확장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거시경제 요인을 포함함. 넷째, 외부위험은 경상 수지, 자본 흐름, 외환보유고, 대외채무 규모, 무역 및 대외투자부채를 충당하기에 충분한 외화를 창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을 포함.

자료: D&B Country Risk Indicator, Dun & Bradstreet

□ 주요 거시경제 지표

- 캄보디아는 지난 10년 간 경제개발속도가 가장 빠른 개발도상국가 중 하나이며, 2017년 GDP 성장률은 6.7%로 향후 5년간(2018-2022년) 연간 약 6% 내외의 성장 속도를 보일 것으로 전망
 - 세계은행에 따르면, 캄보디아 국민총소득은 인당 1,070 US달러를 기록해 개발도상국 지위에서 벗어남
 - 그러나 캄보디아는 여전히 아시아의 최빈국 중 하나로 남아 있으며, 2016년 정부 예산의 약 25%를 국제원조와 증여에 의존
- 꾸준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실업률은 2017년 12월 기준 총 인구의 0.3% 내외로 낮은 편에 속하며, 가구당 월평균 가처분소득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소비자들의 구매력도 상승하고 있음
 - 2013-2017년 월평균 가처분소득은 매년 10% 이상 상승 중
 - 건설, 관광, 부동산, 장신구 수출이 주요 산업이며, 내수도 활황을 보이고 있음. 다만, 국가부채와 급격한 임금 상승이 경쟁력에 부정적인 요인
 - 수출 품목이 다변화되어 있지 않고 미국과 EU가 주요 수출국 중 2/3의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대외 수출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 취약한 경제 구조
 - 캄보디아의 경제성장은 농촌보다 도시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며, 농업의 경우 관개사업이 꾸준한 진척을 보이고 있지만 기후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음

표 1.1 주요 거시경제 지표

(단위: %)

구분	2015	2016	2017	2018f	2019f	2020f	2021f	2022f
경상수지(GDP대비)	-9.2	-8.8	-15.7	-14.7	-14.0	-13.8	-12.3	-11.0
부채상환비율	6.1	6.0	6.2	6.4	6.6	6.8	7.0	7.2
재정수지(GDP대비)	-1.6	-1.7	-3.6	-4.6	-4.7	-4.7	-4.7	-4.9
물가상승률	1.2	3.0	2.9	3.5	4.2	4.4	4.4	4.5
경제성장률	7.0	6.9	6.7	6.5	6.5	6.4	6.4	6.2

자료: 「Country Insight Snapshot Cambodia March 2018」, Dun & Bradstreet, 2018.7.13.

□ 무역통상 환경

-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의 「글로벌경쟁력보고서 2017-18」에 따르면 캄보디아의 국가경쟁력 등급은 137개국 중 91등에서 94등으로 떨어짐
 - 일반적인 거시경제환경은 50위에서 70위로 악화됨. 법인세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에 속하며, 통관 절차의 부담, 창업에 소요되는 시간, 정부 정책결정과정에서의 투명성도 마찬가지로 악화
- 무역 규모는 1999년 ASEAN 가입, 2004년 WTO 가입 이후 비약적으로 증가
 - WTO 가입 이후 캄보디아 정부는 무역 관련 법안과 WTO 규정 준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결과 대부분의 관세·비관세 장벽 제거
 - 2015년 12월 아세안경제공동체(AEC) 가입으로 캄보디아의 경제성장이 가속화되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ASEAN 국가들과 FTA 체결로 무역통상 환경을 꾸준히 개선 중

표 12 캄보디아 수출입 규모 및 성장률(2008-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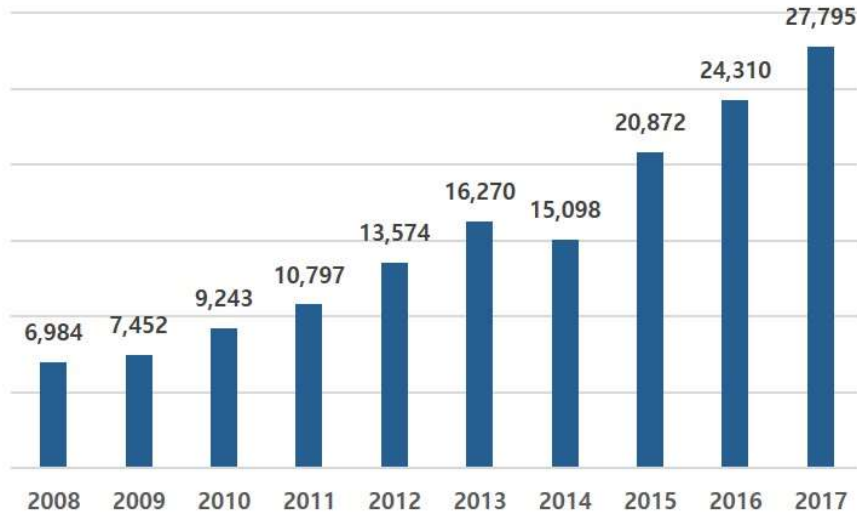
(단위: 백만 US달러, %)

연도	수입(A)		수출(B)		무역수지(B-A)		총 교역량(A+B)	
	금액	성장률	금액	성장률	금액	성장률	금액	성장률
2008	3,517	16.0	3,467	14.9	-50	258.3	6,984	15.5
2009	3,271	-7.0	4,180	20.6	909	-1,907.0	7,452	6.7
2010	4,315	31.9	4,928	17.9	613	-32.6	9,243	24.0
2011	5,160	19.6	5,637	14.4	477	-22.1	10,797	16.8
2012	6,433	24.7	7,142	26.7	709	48.5	13,574	25.7
2013	8,122	26.3	8,148	14.1	26	-96.4	16,270	19.9
2014	9,037	11.3	6,061	-25.6	-2,976	-11,663.6	15,098	-7.2
2015	11,826	30.9	9,045	49.3	-2,781	-6.6	20,872	38.2
2016	13,635	15.3	10,675	18.0	-2,960	6.4	24,310	16.5
2017	16,667	22.2	11,128	4.2	-5,539	87.1	27,795	14.3

자료: EU Directorate-General for Trade

그림 1.1 캄보디아 연도별 무역 규모(2008-2017)

(단위: 백만 US달러, %)



자료: EU Directorate-General for Trade

- o 2017년 기준 對캄보디아 주요 수출국은 중국, 싱가포르, 태국
 - 중국이 약 56억 9,000만 US 달러로 캄보디아 수입의 34.1%를 차지하며, 뒤이어 싱가포르가 21억 2,600만 US 달러로 12.8%, 태국이 20억 6,500만 US 달러로 12.4%
 - 한국의 對캄보디아 수출 규모는 4억 5,600만 US달러로 9위를 차지했으며, 식품 수출 시 안전성 및 품질 측면에서 어느 정도 신뢰성을 확보한 태국과 경쟁해야 할 것으로 예상됨

표 1.3 2017년 對캄보디아 주요 수출국 및 점유율

(단위: 백만 US 달러, %)

수입국	2017		
	금액	점유율	
글로벌	16,667	100.0	
1	중국	5,691	34.1
2	싱가포르	2,126	12.8
3	태국	2,065	12.4
4	베트남	1,678	10.1
9	한국	456	2.7

자료: EU Directorate-General for Trade

□ 위험 및 기회 요소

구 분	세 부 내 용
단기 경제전망	<p>캄보디아 경제, 당분간 견고한 성장 예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향후 몇 년간 6.0%을 상회하는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의 불안정한 정치적 이슈들이 경제성장을 가로막을 가능성은 있음 미국의 원조 중단, 훈센 총리에 대한 국제적 압박과 같은 정치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2018년과 2019년 경제성장률은 6.5%에 이를 것으로 전망 낮은 내수 식량 가격과 민간 소비 성장률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있어 2016년 3.9%까지 치솟았던 물가상승률은 2017년 2.1%에 머물렀고 올해는 2.4%로 예상
장기 경제전망	<p>캄보디아 정부, 10년에 걸친 산업개발정책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신구 수출에 치중된 산업구조를 개편하기 위해 경공업과 농업 다각화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산업화를 가속화시키기 위한 가용 에너지 자원 확보에 총력 철도 투자 확대 통해 태국과의 철로 복원을 추진 중이며, 2018년 내 완공 예정. 내수 철도 물동량 상승과 국가 간 거래량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시하누크빌과 프놈펜 사이의 철도 또한 항구를 통해 들어오는 외국 교역량에 대한 물류 비용을 70%까지 절감할 것으로 추정 도로 확충 투자는 베트남과의 대륙간 거래를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되며, 캄보디아는 이와 같은 대규모 인프라 공사를 통해 주변국을 잇는 지역적 물류 허브 구축을 기획 중 <p>저상 세산 2(lower Sesan 2 dam) 수력발전소 완전 가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약 8억 6,000만 US달러 규모의 저상 세산 2 수력발전소(Lower Sesan II dam)가 2018년 10월에 완전 가동 예정 2017년 9월 중국-캄보디아 컨소시엄을 통해 준공됐으며, 캄보디아 총 발전용량(2,008MW)을 약 20%를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
정치적 불안 및 위험 요인	<p>7월 선거 결과 여당의 압승</p> <p>▶ 제1야당인 캄보디아구국당 해산과 캄소카의 체포로 7월 29일 국회의원 선거는 훈센 총리의 지위를 위협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7월 29일 국회의원 선거 전 야당 대표를 반역죄로 기소하고, 야당의 전 당대표 삼랑시(Sam Rainsy)가 투표를 보이콧하는 캠페인을 벌이는 등 정치적 갈등 심화 7월 29일 선거 실시. 예상됐던 대로 훈센의 캄보디아 인민당(CCP)이 압승을 거둬 총 125석 모두 확보 <p>증여국과의 관계 악화</p> <p>▶ 캄보디아의 정치 상황에 증여국들이 부정적인 반응 보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은 지난 2월 캄보디아 원조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으며, EU 또한 캄보디아에 무기를 제외한 모든 품목의 수입에 관세와 쿼터를 면제하는 EBA 법안(the Everything But Arms initiative)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경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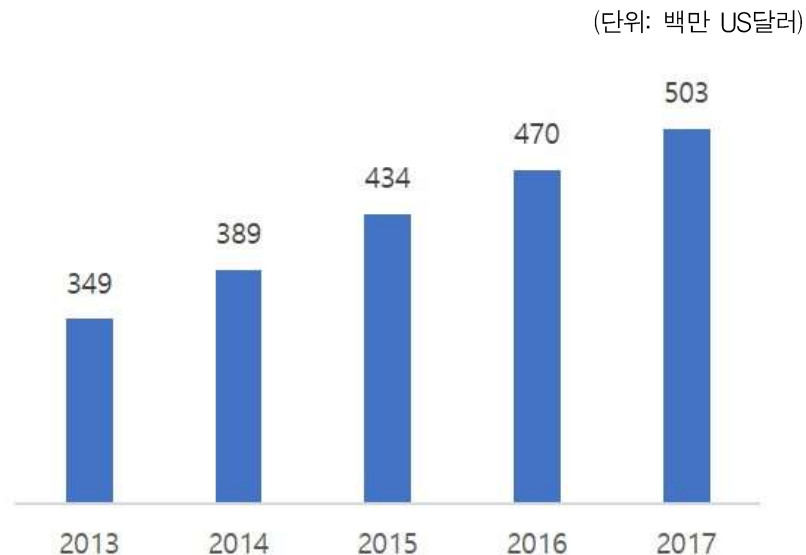
자료: 「Country Insight Snapshot Philippines April 2018」, Dun & Bradstreet, 2018.7.13.

2. 식품산업 현황

□ 가공식품 시장 현황

- 캄보디아 식품시장 규모는 2016년 기준 약 83억 4,550만 US달러이며, 2021년까지 연평균 9.6%의 성장이 전망됨²⁾
- 캄보디아 가공식품 소매시장 규모는 지난 5년 간 연평균 10% 이상의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2017년 기준 약 5억 US달러의 규모로 성장
- 가공식품 소매시장은 ① 꾸준한 경제성장에 따른 가처분 소득 증가 ② 슈퍼마켓, 편의점 등 유통채널 증가 ③ 캄보디아 소비자의 서구 브랜드에 대한 관심 고조 ④ 품질 및 건강에 대한 인식 향상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추세
- 고소득자와 중산층 증가로 가공식품 소매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소비자구매력 및 구매 기준이 향상됨에 따라 수입 품목과 수입량도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2020년까지 약 5억 8,300만 US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

그림 1.2 캄보디아 가공식품 소매시장 규모(2013-2017년)



자료: Euromonitor International

2) 자료: 「Cambodia Food & Drink Report 2018 Q2」, BMI research, 2018

□ 캄보디아 초콜릿 시장 현황

- 캄보디아 초콜릿 시장 규모는 최근 5년간 약 40% 성장
 - 2013-2017년 연평균 8~9%의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음
- 연간 6~7%에 달하는 경제성장률, 도시 인구와 중산층 소득의 증가로 다양한 기호식품 및 해외 브랜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이러한 제반여건이 초콜릿 소비의 꾸준한 증가를 이끌어낸 것으로 분석

표 1.4 캄보디아 초콜릿 시장 규모(2013-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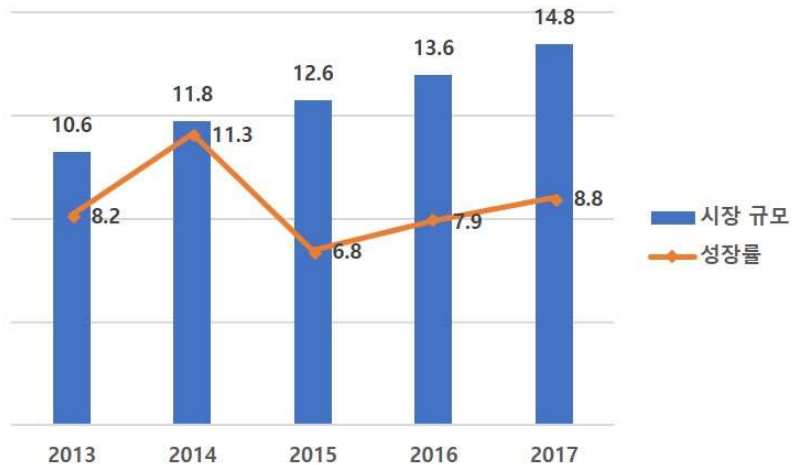
(단위: 백만 US달러, %)

연도	금액	성장률
2013	10.6	8.2
2014	11.8	11.3
2015	12.6	6.8
2016	13.6	7.9
2017	14.8	8.8

자료: Euromonitor International

그림 1.3 캄보디아 초콜릿 시장 규모(2013-2017)

(단위: 백만 US달러, %)



자료: Euromonitor International

3. 수출입통계 및 생산통계

수출입통계 및 생산통계 개요

❖ 소매용 초콜릿 관련 주요 수치

- 글로벌 소매용 초콜릿 수입 규모 약 90억 US달러(2017년)
- 캄보디아 소매용 초콜릿 수입 규모 약 160만 US달러, 세계 134위(2017년)
- 캄보디아 소매용 초콜릿 수입 시장점유율 1위 태국(30.1%), 2위 싱가포르, 3위 일본 순(2015년)
- 한국산 소매용 초콜릿의 전 세계 수출량 약 1,480톤, 1,120만 US달러(2017년)

❖ 소매용 초콜릿 국가별 HS CODE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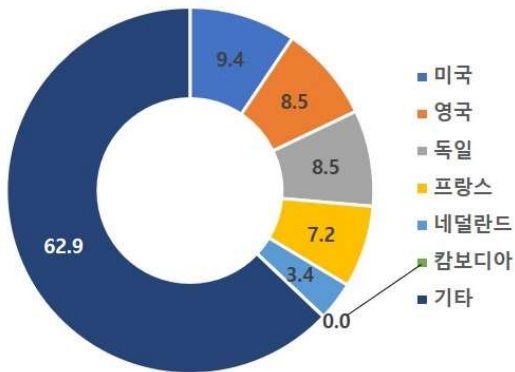
국가	HS CODE	품명
한국	1806.31.1000	기타(블록 모양·슬래브 모양·막대(bar)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 다른 것으로 속을 채운 것
캄보디아	1806.31.10	초콜릿 제조품(다른 것으로 속을 채운 것)
한국	1806.32.1000	기타(블록 모양·슬래브 모양·막대(bar)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 속을 채우지 않은 것
캄보디아	1806.32.10	초콜릿 제조품(속을 채우지 않은 것)

❖ 전 세계 소매용 초콜릿 수입 규모(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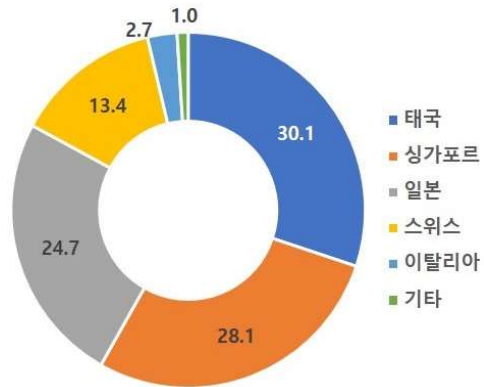
수입국	2017	
	금액(천 US달러)	
글로벌	9,023,044	
1	미국	848,424
2	영국	766,216
3	독일	765,481
4	프랑스	653,545
5	네덜란드	309,943
134	캄보디아	1,609

자료: International Trade Centre(www.trademap.org)

❖ 전 세계 소매용 초콜릿 수입 비중(2017)



❖ 캄보디아 소매용 초콜릿 수입액 국가별 비율(2015)³⁾



3) 해당 통계의 경우 2016-2017년 자료가 아직 공개되지 않음

1) 통계분석 기준 설정

□ 초콜릿 통계 기준 설정

- 초콜릿의 전 세계 및 캄보디아 수입 통계 및 초콜릿의 한국산 수출 통계를 확인하기 위해 HS CODE를 통계 기준으로 설정하고⁴⁾, 캄보디아의 시장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품목 키워드를 조사 기준으로 설정

□ 초콜릿 제품의 정의

- 초콜릿 제품의 경우 우유, 땅콩, 아몬드 등의 다양한 첨가물을 함유하고 막대, 태블릿, 알갱이, 정제(pastill) 등 다양한 형태로 제조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HS CODE의 분류도 지극히 세분화되어 있음
- 본 보고서에서는 초콜릿 제품의 정의를 '일반적인 판상, 막대나 바 형태의 소매형 초콜릿 제품'(속을 채우거나 채우지 않은 제품 모두)로 상정하고 조사 진행
- 향후 수출을 진행할 경우 자사의 초콜릿 제품이 어떤 범주에 해당하는지 면밀하게 파악한 후 수출을 진행할 것을 권유

□ 일반 소매용 초콜릿의 HS CODE⁵⁾ - 1806.31.1000, 1806.32.1000

- HS CODE 1806.31.1000 은 '기타(블록 모양·슬래브 모양·막대(bar)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 다른 것으로 속을 채운 것' 중 '초콜릿과 초콜릿과자'
- HS CODE 1806.32.1000 은 '기타(블록 모양·슬래브 모양·막대(bar)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 속을 채우지 않은 것' 중 '초콜릿과 초콜릿과자'
- 우리나라 HS CODE 1806.31.1000 및 1806.32.1000 에 해당하는 캄보디아 초콜릿 HS CODE 는 1806.31.10(초콜릿 제조품(다른 것으로 속을 채운 것)) 및 1806.32.10(초콜릿 제조품(속을 채우지 않은 것))

4) 의뢰 제품의 HS CODE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한국관세무역개발원에서 발간한 '2018 HS품목별 수출입통관편람'을 조회하거나,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 3.0'을 활용하는 방법 등이 있음

5) HS CODE는 6자리는 전 세계 공통, 7-10번째 숫자는 각 나라마다 다르게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은 10자리, 캄보디아는 8자리를 사용하고 있음

표 1.5 초콜릿 항목별 통계 기준 설정

조사 항목	통계 기준			
글로벌 수입 통계	HS CODE	1806.31	품명	기타(블록 모양·슬래브 모양·막대(bar)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 다른 것으로 속을 채운 것
		1806.32		기타(블록 모양·슬래브 모양·막대(bar)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 속을 채우지 않은 것
1806.31.10		초콜릿 제조품(다른 것으로 속을 채운 것)		
1806.32.10		초콜릿 제조품(속을 채우지 않은 것)		
한국산 수출 통계	1806.31.1000		초콜릿과 초콜릿과자	
	1806.32.1000		초콜릿과 초콜릿과자	

표 1.6 초콜릿 HS CODE 분류

국가	HS CODE	품명
한국	1806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
	1806.31	기타(블록 모양·슬래브 모양·막대(bar)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 다른 것으로 속을 채운 것
	1806.31.1000	초콜릿과 초콜릿과자
캄보디아	1806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
	1806.31	기타(블록 모양·슬래브 모양·막대(bar)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 다른 것으로 속을 채운 것
	1806.31.10	초콜릿 제조품(다른 것으로 속을 채운 것)
한국	1806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
	1806.32	기타(블록 모양·슬래브 모양·막대(bar)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 속을 채우지 않은 것
	1806.32.1000	초콜릿과 초콜릿과자
캄보디아	1806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
	1806.32	기타(블록 모양·슬래브 모양·막대(bar)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 속을 채우지 않은 것
	1806.32.10	초콜릿 제조품(속을 채우지 않은 것)

표 1.7 HS CODE 검색 사이트

구분	사이트명	URL
HS CODE	관세법령정보포털 3.0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세계 HS 정보시스템	http://www.customs.go.kr/kcshome/getBuRyuList.po

자료: 관세법령정보포털 3.0(unipass.customs.go.kr), 세계 HS 정보시스템(www.customs.go.kr)

2) 글로벌 수입 통계(통계기준: HS CODE 1806.31 및 1806.32)

□ 2017년 글로벌 수입 규모 1위 국가는 미국(9.4%)이며, 캄보디아는 134위(0.01%)

- 2017년 전 세계 소매용 초콜릿 수입 규모는 약 90억 US달러로 2015-2017년 연평균 성장률 2.4%를 기록
 - 소매용 초콜릿 수입 1위 국가는 미국으로 2017년 기준 약 8억 4,800만 달러 (9.4%)를 수입하였으며, 2015년-2017년 연평균증가율은 5.7%
- 2017년 캄보디아의 소매용 초콜릿 수입 규모는 160만 US달러로 136위를 기록

표 1.8 글로벌 소매용 초콜릿 수입 규모 추이(2015-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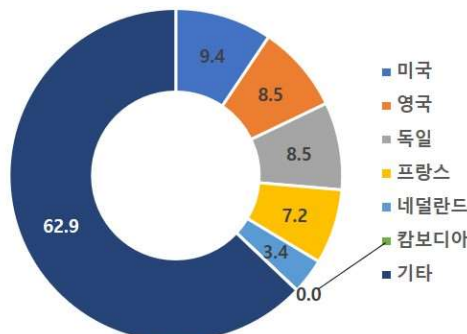
(단위: 천 US달러, %)

수입국		2015	2016	2017	2015-2017 연평균성장률 ⁶⁾
		금액	금액	금액	
글로벌		8,399,028	8,616,845	9,023,044	2.4
1	미국	719,408	818,561	848,424	5.7
2	영국	779,127	727,772	766,216	-0.6
3	독일	738,153	700,878	765,481	1.2
4	프랑스	592,943	602,320	653,545	3.3
5	네덜란드	227,510	271,172	309,943	10.9
134	캄보디아	304	392	1,609	74.3

자료: International Trade Centre(www.trademap.org)

그림 1.4 글로벌 소매용 초콜릿 수입 비중(2017년)

(단위: %)



자료: International Trade Centre(www.trademap.org)

6) 연평균성장률 = (최신/최초연도)^{1/n개년}-1

3) 캄보디아 수입 통계(통계기준: HS CODE 1806.31.10 및 1806.32.10)

□ 2015년 캄보디아 소매용 초콜릿 수입액 점유율 1위는 태국으로 30.1% 차지

- 2015년 캄보디아의 소매용 초콜릿 수입액은 약 30만 US달러로, 이는 2015년 약 20만 9,000 US달러에서 약 39.7% 증가
- 2015년 기준, 캄보디아의 소매용 초콜릿 수입 1위국은 태국으로 약 8만 8,000 US달러, 30.1%를 차지
 - 뒤를 이어 싱가포르와 일본으로부터 각각 8만 2,000 US달러, 6만 2,000 US 달러를 수입하였으며, 각각의 수입액 비중은 28.1%, 24.7%를 기록
- 한국의 경우 캄보디아에서의 수입량은 집계되지 않음

표 1.9 캄보디아 소매용 초콜릿 수입액 규모(2013-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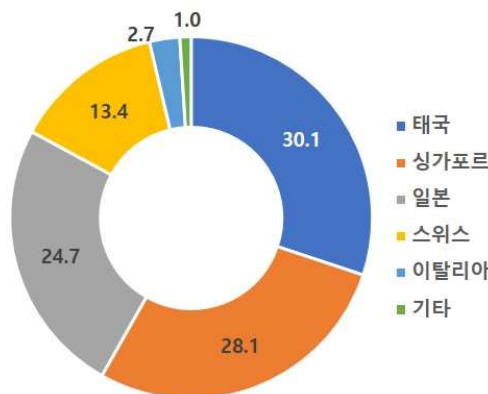
(단위: 천 US달러, %)

수입상대국		2013	2014	2015	2015년 수입 점유율(%)
		금액	금액	금액	
글로벌		71	209	292	100
1	태국	19	71	88	30.1
2	싱가포르	51	131	82	28.1
3	일본	0	0	72	24.7
4	스위스	0	0	39	13.4
5	이탈리아	0	0	8	2.7

자료: International Trade Centre(www.trademap.org)

그림 1.5 캄보디아 소매용 초콜릿 수입액 국가별 비율(2015)

(단위: %)



자료: International Trade Centre(www.trademap.org)

4) 한국산 수출 통계(통계기준: HS CODE 1806.31.1000 및 1806.32.1000)

- 한국산 소매용 초콜릿의 글로벌 수출량 및 수출액은 2016년 각각 약 1,546톤과 약 1,147만 US달러로 최고치 기록
 - 한국산 소매용 초콜릿의 2013-2017년 글로벌 수출량은 큰 폭의 증감을 나타냈으나, 2016년 급격히 증가한 이후 유사한 수준 유지
- 한국산 소매용 초콜릿의 對캄보디아 수출량은 소규모이며, 연간 변동폭이 큼
 - 2013-2015년 한국산 소매용 초콜릿의 對캄보디아 수출량은 연간 1톤 미만이었으며, 수출액 또한 최고치를 기록한 2014년에 약 3만 8,000 US달러에 불과한 수준. 개별 계약 성사 여부에 따라 연 증감률이 크게 변화한 것으로 추정됨

표 1.10 한국산 소매용 초콜릿 수출 통계(수출대상국: 전 세계)

(단위: 톤, 천 US달러)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중량 (연 증가율)	935 (36.5)	605 (▽35.3)	878 (45.1)	1546 (76.1)	1,480 (▽4.3)
금액 (연 증가율)	7,122 (7.5)	6,096 (▽14.4)	7,800 (28.0)	11,470 (47.1)	11,212 (▽2.2)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www.trass.or.kr)

표 1.11 한국산 소매용 초콜릿 수출 통계(수출대상국: 캄보디아)

(단위: kg, US달러)

구분	2013	2014	2015
중량 (연 증가율)	936	1,192 (27.4)	431.2 (▽63.8)
금액 (연 증가율)	21,465	38,027 (77.2)	5,399 (▽85.8)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www.trass.or.kr)



II. 시장 트렌드

1. 정책 동향
2. 소비자 트렌드
3. 소비 및 제품 트렌드
4. 유통 트렌드

시장 트렌드 개요

1. 정책 동향

- ❖ 식품위생체계 미비하며 초콜릿 관련 규제도 거의 없음
- ❖ 식품 위생 관련 이슈가 끊이지 않아 2015년 말 식품위생 및 품질관리에 관한 캄보디아 식품안전법(Cambodia Food Safety Law) 초안 발표(진행 중)
- ❖ 법률 위반자 처벌 강화가 예상됨에 따라 동향 주시 및 대응 필요

2. 소비자 트렌드

- ❖ 도시 인구 및 젊은 노동 가능 인구의 증가로 개방적 소비 성향 증가 기대
- ❖ 저렴한 가격 중심 소비 대신 품질과 브랜드에 대한 관심 증가
- ❖ 단맛 초콜릿이나 너트 혹은 체스넛이 들어있는 크런치한 식감 선호

3. 제품 트렌드

- ❖ 태국, 말레이시아 수입 제품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볼 수 있는 다양한 해외 유명 브랜드 초콜릿 판매 중

4. 유통 트렌드

- ❖ 저렴한 가격이 강점인 전통시장이 아직 지배적
- ❖ 유통채널의 다양화 및 현대화 진행 중
- ❖ 외국 브랜드, 슈퍼마켓, 식음료 매장을 수용하는 대형 쇼핑몰 급성장 중
- ❖ 캄보디아 소비자는 인터넷 쇼핑보다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직접 구매 훨씬 선호

1. 정책 동향

□ 캄보디아 초콜릿 규제 체계

- 대부분의 식품과 농산물에 대한 관련 규제체계가 미비하며, 초콜릿도 예외가 아님
 - 2015년까지 식중독 관련 사고가 연간 1,000건 이상 발생해 보건부가 규제를 강화하기로 발표했으며, 이후 사고 건수가 줄어드는 추세
 - 물류 인프라 부족으로 위생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아 냉장상태 불량 또는 조리 환경 부실로 인한 식중독 사건이 매해 발생
 - 관광객 유입과 외국인 투자기업 진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새로운 식품안전법 제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
- UN식량농업기구(FAO)의 지원으로 최초의 식품안전법 초안 작성을 시작해, 2015년 말 산업부(Ministry of Industry and Handicraft)가 오염된 식품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법안의 초안 공개
 - 해당 법안은 농민, 가공업자, 포장업자, 유통 및 판매업자로 이어지는 전체 식품 공급 체인에 적용
 - 산업부뿐만 아니라 상무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법률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이 예상됨
 - 해당 법안의 승인과 발효는 약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발표됐지만, 이러한 법안의 경우 이익집단과의 협상 과정 때문에 법안 발효에 더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법안 발효 시 그에 따라 대응할 필요성이 있음

2. 소비자 트렌드

□ 도시 인구 및 젊은 노동 가능 인구의 증가로 개방적 소비 성향 증가 기대

- 전체 인구 중 도시 인구 비율은 2016년 기준 약 23.5%이며, 전체 노동 가능 인구 대비 15-24세 노동 가능 인구의 비율이 23.8%로 매우 젊은 소비 성향을 보이는 시장
 - 이들 젊은 인구는 새로운 기술과 SNS에 민감해 전 세계적인 유행을 쉽게 파악
 - 경제 성장과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로 캄보디아의 식품 시장은 지난 몇 년 동안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캄보디아 국내외로부터 많은 투자를 받고 있음
- 중산층의 가처분 소득 증가와 외국인 및 관광객 유입 증가로 서구식 유통채널이 주목받고 있음
 - 캄보디아 소비자는 일상생활 속에서 브랜드에 대한 경험이 적기 때문에 신상품에 민감. 따라서 브랜드 마케팅과 광고가 중요한 역할 차지
 - 초콜릿의 경우 미국, 유럽, 일본 제품에 관심이 많으며,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의 제품을 구매하려는 경향이 있음
 - 그러나 기본적으로 경쟁 제품이 많기 때문에 가격은 여전히 민감한 구매 결정 요인

□ 캄보디아 소비자의 초콜릿 제품 소비 트렌드

- 초콜릿 소비 행태
 - 캄보디아는 역사적으로 UN, 일본, 유럽의 영향을 많이 받아 왔으며, 그에 따라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
 - 디저트로서 초콜릿을 주로 소비하거나 주 식품보다는 프로모션 진행, 선물용, 기념일용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음
- 초콜릿 선호 트렌트
 - 캄보디아 소비자의 입맛에는 커버처(courveture) 스타일의 쓴 초콜릿보다 단맛이 강한 컴파운드 초콜릿(compound chocolate)이 더 인기⁷⁾
 - 하지만 아주 단맛만을 선호하는 편은 아니며, 일반 단순 초콜릿 제품보다는 너트나 쿠키가 들어있는 제품을 더 선호

7) 캄보디아 사회경제통계(캄보디아 통계청, <http://www.nis.gov.kh> 검색일: 2018.7.6.)

8) 'Wholesaler eyes Cambodia-made chocolate' Phnom Penh post, 2010.6.10.

❖ [현지 소비자 인터뷰]

<p>Mr. Bin Phanith (22세, 남)</p>	<p>캄보디아 매장에서 판매 중인 초콜릿들의 맛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아 특별한 선호 없음. 이 초콜릿들은 아시아 사람들의 입맛을 고려해 제조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가끔 가격을 고려해서 H사의 제품처럼 저렴한 브랜드를 구매</p>
<p>Ms. Chy Bormey, (22세, 여)</p>	<p>초콜릿만 있는 제품은 너무 심심해서 달고 크런치한 식감을 지니며 너트가 들어있는 제품을 선호. 유럽산을 주로 선호하며, 원산지에 관해서 적절한 식품 안전 검사를 거쳤다고 믿고 있음. 이런 안전성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라고 생각함</p>
<p>Tuon Sereyratanna (22세, 여)</p>	<p>다른 브랜드에 비해 달고 너트나 쿠키가 들어있는 k 브랜드나 F 브랜드를 선호. 약간 쓴 맛의 초콜릿은 잘 먹지 않는 편. 또, 온라인 광고나 다른 나라에서 온 친구들이 이 제품을 선호하는 걸 보고 자신의 선호에도 영향받았다고 생각함</p>
<p>Seng Seyha (20대 중반, 남)</p>	<p>F 브랜드 혹은 유럽 브랜드가 품질이나 원산지 측면에서 좋은 인상을 주기 때문에 선호. 가격보다는 맛이 중요. F 브랜드의 경우는 안에 너트와 크런치한 쿠키, 체스넛이 들어 있어서 크게 선호</p>
<p>Chan Sokmeng (19세, 남)</p>	<p>초콜릿을 특별한 경우에만 사는 편이고 안에 초콜릿 밀크와 쿠키가 들어있는 k 브랜드를 선호. 너무 달지 않아 간식거리로 먹음</p>
<p>Kuch Chanchyhav (19세, 남)</p>	<p>식감이 좋아서 너트가 있는 초콜릿 선호</p>

자료: 현지조사원

3. 제품 트렌드

□ 초콜릿 제품 트렌드

- 캄보디아 내에서 생산 중인 초콜릿이 없을 정도로 거의 모든 초콜릿 공급을 수입에 의존하며, 최근 자국 농장에서 코코아를 재배하기 시작⁹⁾
- 대형 유통 매장 및 온라인 몰에서 다양한 수입산 초콜릿을 판매하는 광경 볼 수 있음
 -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산 초콜릿을 쉽게 목격할 수 있으며, 한국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해외 유명 브랜드도 찾아볼 수 있음

표 2.1 캄보디아 내에서 유통 중인 초콜릿

Ball Choco (태국산)	Chacha Candy (인도네시아산)	Coin Choco (태국산)
		

자료: 현지조사원

표 2.2 캄보디아 내에서 유통 중인 해외 유명 브랜드 초콜릿

H 브랜드	K 브랜드	K 브랜드	M 브랜드(한국산)
			

자료: 현지조사원

9) "Hopes for a Cambodia cocoa province", Khmer Times, 2018. 6. 22.

- 캄보디아 관광산업의 부흥과 함께 고급 초콜릿에 대한 관심도 높아짐. 이러한 초콜릿은 B2C 방식으로 직접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되기보다는 고급 호텔 등지에 맞춤형 주문 제작의 형태로 납품하는 경우가 많음
 - 예를 들면, 후추 생산으로 유명한 캄푹 지방의 후추를 초콜릿에 첨가하거나 특제 꿀을 가미하는 방식으로 프리미엄 초콜릿을 제작해서 납품하기도 함

그림 2.1 캄보디아 프리미엄 초콜릿 전문점 ‘The Chocolate Shop’



매장 내부 모습



캄푹 지방의 후추를 가미한
프리미엄 초콜릿

자료: <http://theshop-cambodia.com/>

4. 유통 트렌드

1) 오프라인 유통 트렌드

□ 캄보디아 식품 소매유통 채널¹⁰⁾

- 캄보디아의 소매 유통채널은 전통시장, 하이퍼마켓, 슈퍼마켓, 편의점으로 구분
- 아직 전통시장이 지배적이며, 특히 노점상과 재래시장을 많이 볼 수 있음. 대부분의 도시 인구는 저렴한 가격으로 인해 여전히 이러한 형태의 시장을 많이 이용

그림 2.2 캄보디아 노점상



자료: euroasiasearchexperts

- 일반 소비자의 전통시장 선호에도 불구하고 관광산업의 성장과 소득 및 외부인 유입 증가로 인해 유통채널의 현대화가 가속화되고 있음

□ 현대화된 유통 채널

- 가공식품은 주로 소비가 쉬운 편의점과 슈퍼마켓을 통해 유통됨
- 최근 몇 년 사이에 고급 대형 유통 채널의 개설로 현대화된 유통 구조가 확산되고 있음

10) 2017년 7월 <http://euroasiaresearchexperts.com/updates/cambodias-retail-sector/>

- 하이퍼마켓, 슈퍼마켓, 외국인 대상 드럭스토어까지 유통 채널의 다양화가 진행 중
- o 도시 지역에서는 외국 브랜드, 슈퍼마켓, 식음료 매장을 수용하는 대형 쇼핑몰이 급 성장 중이며, 소비자들은 일본, 한국 및 여타 ASEAN 국가들에서 수입된 식품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등 향후 수입 식품시장의 전망도 밝은 편
- o 전통재래시장과 달리 현대화된 슈퍼마켓은 위생 준수 및 신선식품 냄새 제거를 위해 포장된 제품 제공

그림 2.3 슈퍼마켓 내 가공식품 유통 현황



육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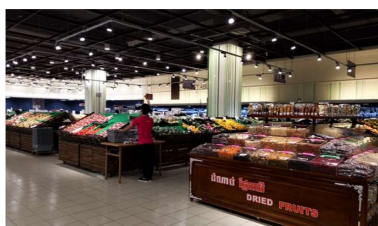
해산물

베이커리

자료: euroasiaserchexperts

- o 2014년 일본의 대표적인 소매업자인 이온몰이 프놈펜에서 영업을 시작. 이온몰은 슈퍼마켓을 포함하여 보다 많은 제품의 선택권과 향상된 쇼핑 경험을 제공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신선제품 코너를 비롯한 넓은 매장 크기, 질 높은 위생 수준으로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이온몰의 오픈은 캄보디아 내 다른 소매업자들로 하여금 소비자들의 수요에 더 적합한 제품을 제공하도록 만듦으로써 경쟁을 촉발하는 계기가 됨
- 프놈펜 매장의 성과에 따라 앞으로 총 5개의 점포를 추가로 유치할 계획

그림 2.4 프놈펜 이온몰 슈퍼마켓 매장



과일 매장 전경



즉석조리식품 진열대

자료: euroasiaserchexperts

- 캄보디아의 편의점은 아직 보편화 되지 않았으나,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노동 인구의 증가로 편의점에서의 물품 구매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증가하는 슈퍼마켓과 함께 편의점 또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됨
 - 키위마트는 프놈펜에 12개의 점포를 가지고 있는 24시간 편의점
- 캄보디아 식품 소매 유통시장은 경쟁의 여지가 남아 있음. 세븐일레븐의 가장 큰 프랜차이즈 중 하나인 CP All은 캄보디아 시장이 아직 포화상태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편의점 사업 진출을 계획하고 있음
-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은 수입식품 판매에 적극적인 경향을 띄고 있어 이들 유통채널에 대한 접근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함

□ 오프라인 유통채널을 선호하는 소비 성향

- 캄보디아 소비자는 식료품이나 일상용품의 경우 인터넷에 업로드된 사진만을 보고 구매 판단을 잘 내리지 않으므로 오프라인 유통 매장을 통한 시장 진출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성 있음
 - 타 국가와 달리 인터넷 쇼핑으로 제품을 구매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전통적 사고를 고수하는 소비가 많음
 - 물건을 구매하고 기다리기보다 바로 손에 쥐고 싶어 하는 심리와 오프라인 상에서 직접 품질과 포장을 확인하고 구매하려는 소비행태가 여전히 남아 있음

표 2.3 캄보디아 주요 슈퍼마켓 및 편의점

유통업체	특징
<p>AEON MALL</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장 수: 1(프놈펜), 슈퍼마켓은 2018년 현재 3개 입점 · 캄보디아 진출 확장을 꾀하는 일본 하이퍼마켓 · 2014년 개점 첫 해에 1,500만 명의 방문객을 유치. 2018년에 두 번째 매장 개 설을 준비 중. 일본, 태국, 싱가포르에서 제품을 주로 수입하지만 미국 제품 또한 취급 <p style="text-align: center;"><AEON MAXVALU SUPERMARKET></p> 
<p>Lucky Supermarke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장수: 11 · 캄보디아 유통채널 중 점유율 1위의 대규모 유통채널 · 다양한 국가의 제품 구비하며 한국 제품도 있음 · 럭키버거와 같은 패스트푸드점을 개설하고 매장 내에 베이커리를 운영. 이들은 미국에서 냉동감자를 직접 수입하거나 싱가포르에서 제품을 공급받고 있음 
<p>Bayon supermarke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장 수: 2 · 중산층 이상의 소비자를 타깃으로 유럽, 호주 미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 한국 등 다양한 국가의 프리미엄 제품을 수입 

<p>Thai Huot Supermarke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장수: 4개로 일반 쇼핑몰 형태로 운영. · 캄보디아 점유율 2위 유통업체 · 호주, 유럽, 미국, 아랍 등 다양한 국가의 제품 구비 · 웹사이트에 품목별 사진, 원산지 등의 정보를 제공 ·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위치 
<p>Super Dupe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형 슈퍼마켓 · 해외 가공 식품을 구비하고 있으며, 24시간 영업
<p>Kiwci Mar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장수 12 · 프놈펜에서 성공적인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편의점 
<p>기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on Jour, Tela, Star: 주유소 매점형 편의점 · 대부분의 소매 유통채널이 프놈펜에 입점해있지만 Ankor Market, Lucky Market, Thai Huot Market은 시엠립에서 점포 수 늘리고 있음

자료: 현지조사원

■ 캄보디아 시장 진입 전략

- 에이전트나 유통업자와 같은 현지 파트너 도매상과 일하는 것이 캄보디아 소비자에게 접근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식
- 현지 파트너는 캄보디아에 관한 지식을 갖추고 자신들이 구축한 네트워크를 이용해 시장 진입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음
- 영향력이 큰 도매상들이 유통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 규모가 큰 유통업체가 신설되어도 기존 도매상들의 영향력을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
- 수입식품의 경우 유통업체와의 관계가 매우 중요. 시장을 장악한 대규모 도매상이 5~6개 정도로 파악되며 이들과 접촉하기 쉽지 않고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수입업체가 현지 유통업체와 관계를 구축하고 시장에 진입하는데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정도로 캄보디아에서는 인간관계가 성공적인 거래의 핵심요소이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관계 구축이 매우 중요

■ 주요 도매상 정보

1. +Goodhill Enterprise Pte ltd [www.goodhill.com]
2. + DKSH Cambodia [<http://dksh.com/kh-en/home>]
3. + LSH Cambodia
4. +NCNC (Cambodia) co, ltd.
5. +YHS (Cambodia) Food & Beverage Pte Ltd.,

자료: 미국 수출 조연 기구(www.export.gov)의 '캄보디아 시장진입전략', 현지조사원

2) 온라인 유통 트렌드

□ 전자상거래 식품 유통 트렌드

- 인터넷 이용자 비율은 전체 인구의 약 25.6%¹¹⁾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며, 온라인 전자상거래는 인프라와 이용자 인식 등으로 인해 거의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
 - 하지만 인터넷 인프라 확충과 관련 기업 증가로 사용료가 점점 감소하고,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터넷과 스마트폰 이용률이 높아지는 추세를 고려할 때, 온라인 유통의 접근성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캄보디아 젊은이들은 새로운 것에 긍정적이며, 기성세대와 자신을 구분하면서도 캄보디아의 정체성을 새롭게 유지하는 소비를 지향¹²⁾
 - 페이스북을 활용한 1인 창업자를 중심으로 한 온라인 유통이 확산되고 있음. 개인 계정임에도 상품, 가격 및 주문 전화번호 등을 함께 올리는 글을 자주 목격할 수 있음
 - 소비자를 모으고 제품 홍보하는 경우에 페이스북을 유용하게 사용하며, 댓글을 통해 관심을 보이는 소비자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나 전화번호를 공유하여 집 근처 똑똑 기사를 통해 물건을 배송하는 방식으로 물품들을 판매¹³⁾

■ 캄보디아 온라인 전자상거래 유통 장벽

1. 신뢰: 온라인 상점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여 캄보디아 사람들은 돈을 미리 지불하고 상품을 받는 것에 대해 여전히 회의적. 또한, 온라인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함
2. 지불조건: 10% 미만의 인구만이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지불수단이 제한적임. Paypal과 같은 서비스는 캄보디아 은행과 연동되지 않음. 그러므로 현지의 전자상거래 솔루션은 거의 구비되지 않고 있음
3. 배송: 프놈펜에서 전자상거래 잠재력이 가장 큰 프놈펜에서조차도 배송주소를 찾는 것은 매우 힘든 일. 우편번호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고 집과 회사 주소가 연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거리에서 동일한 집 번호를 가진 경우가 많음. 대규모 도시 건설로 새로운 주소가 매일 발생하고 이 주소의 등록을 조율할 수 있는 구심점이 아직은 갖춰져 있지 않음. 그러므로 캄보디아에서 배송은 픽업 지점을 정하거나 배송자와 수신자 사이에 똑똑을 부르는 것을 의미하기도 함. 하지만 대부분은 인내심을 가지고 활발하게 소통한다면 물건을 받을 수 있음

출처: 'e-commerce in Cambodia', digitalrain.agency(2018.7.9.)

11) CIA World Factbook, 2018. 7. 9.

12) 'The Trends Of The Cambodian Millennial Consumer', www.b2b-cambodia.com (2017.7.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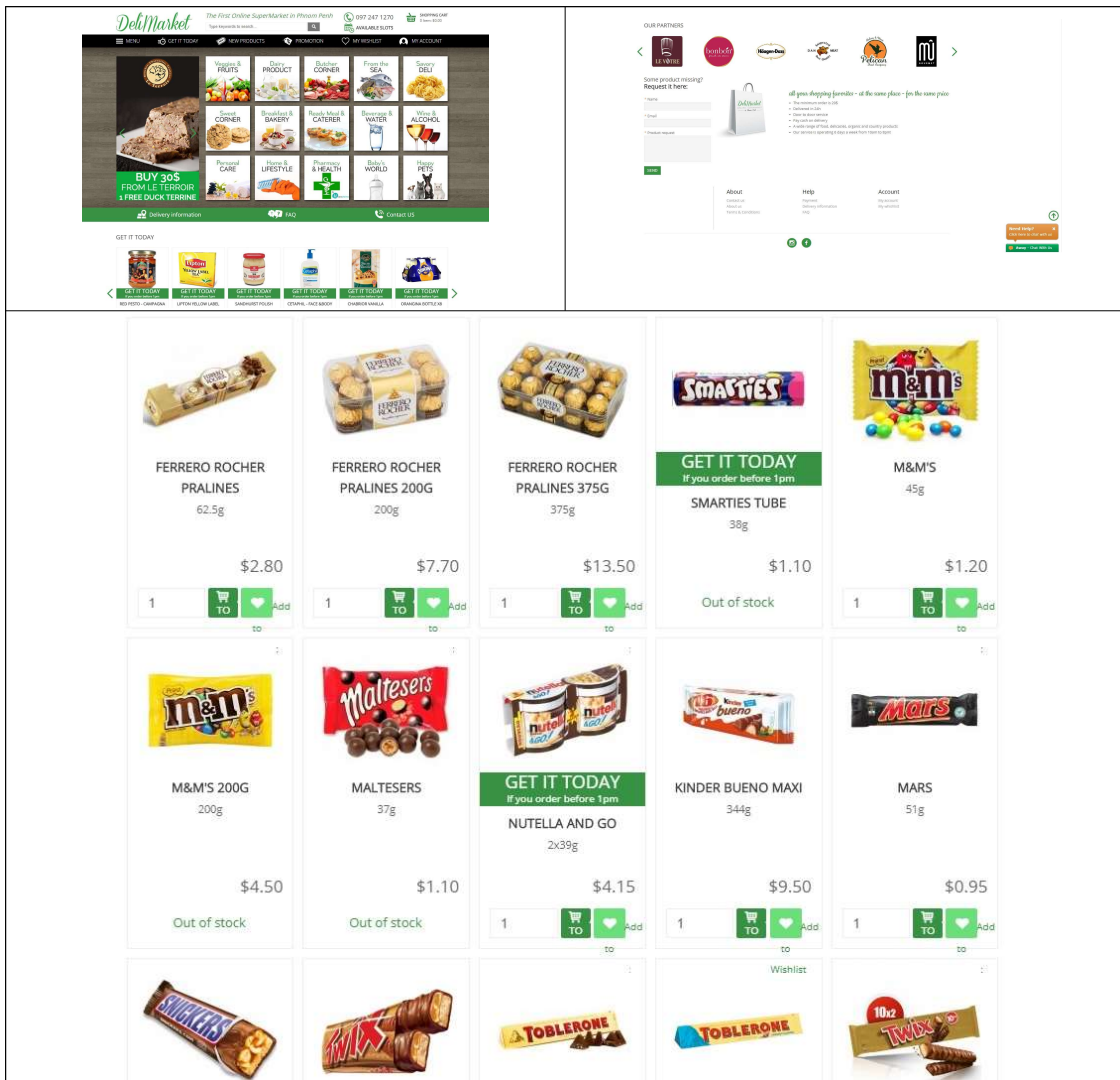
13) [특집기사] ① 페이스북, 캄보디아에서 영향력은?, 뉴스브리핑 캄보디아, 2018.5.4.

표 2.4 캄보디아 주요 인터넷 쇼핑몰

인터넷 쇼핑몰	특징
GroceryDelivery	· 웹사이트: https://grocerydelivery.asia/ · 다양한 식료품과 일상용품 보유
PengPos	· 웹사이트: http://www.pengpos.com/ · 지역 농식품을 주로 취급하지만 다양한 종류의 식료품과 일상용품 또한 보유
Phsar	· 웹사이트: http://www.phsar.net/ · 다양한 상품 보유한 인터넷 쇼핑몰

자료: 현지조사원

그림 2.5 캄보디아 온라인 쇼핑 사이트에서 거래되는 초콜릿



자료: delimarket.asia



Ⅲ. 통관 및 제도

1. 통관 및 검역
2. 인증정보
3. 라벨링
4. 위생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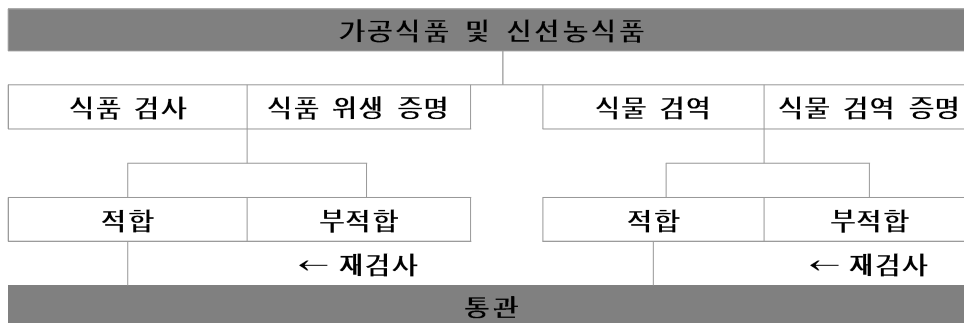
통관 및 검역 개요

❖ 캄보디아 수출 프로세스

캄보디아에 식료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관리 기관인 캄보디아 관세청이 요구하는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출입 프로세스를 이행해야 함

번호	프로세스	주요내용	체크사항
1	수출 전 절차	1) 제출 서류 준비 2) Taric Code 확인 3) ENS (적하목록사전신고) 제출	
2	운송	1) 물류대행사(NVIOCC) 선정 2) B/L 발급(수입 신고 필증) 3) 물품 보세구역 반입	- 주요항만 • 시아누크빌(Sihanoukville)항 • 프놈펜(Phnom Penh) 국제공항
3	수입식품 신고	1) 수입신고서(SAD) 제출(수입업체) 2) 준비 서류 제출 3) 협정관세적용신청서 제출	- 캄보디아 관세청 (http://www.customs.gov.kh/import/) • 세관 규정, 세율 조회 등 안내 - 캄보디아 CAMCONTROL (http://www.camcontrol.gov.kh/)
4	통관절차	1) 세금납부 2) 식품검사 및 식품 검역 3) 라벨링, 식품 성분 분석, 샘플링(10%)	
5	물품 반출	1) 적합판정, 통관 수리 2) 폐기 및 반출	

❖ 가공식품 및 신선농식품 통관 절차



관세 및 세금 개요

❖ 캄보디아 HS-CODE 1806.90.10의 협정세율(2018년 기준)¹⁴⁾

HS CODE 품명	구 분	관세율	원산지 기준
1806.90.10 (Chocolate confectioner y in tablets or pastilles)	최혜국 (Most favored nation, MFN)	35%	-
	아세안 무역협정 (ATIGA)	0%-All	-
	한-아세안 무역협정 (AKFTA)	기타(Other) - 0%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캄보디아 부가가치세 정보

HS CODE 1806.90.10 - 부가세 10% 부과

❖ 캄보디아 관세율 확인 방법

- 1) '관세법령정보포털 3.0 > 세계 HS > 관세율표'에서 캄보디아를 선택한 후 확인하고자 하는 품목의 HS Code를 입력하면, 해당 품목의 최혜국, 아세안 무역협정, 한-아세안 무역협정에 따른 관세율 확인이 가능
- 2) '통합무역정보서비스(www.tradenavi.or.kr) > FTA/관세 > 통합관세비교(한국 FTA기준)'에서 FTA 협정 정보, 관세율, 원산지 기준 확인이 가능
- 3) 캄보디아 현지의 경우 캄보디아 관세청(General Department of Customs and Excise of Cambodia) 웹사이트(www.customs.gov.kh/) > Duties and Taxes에에서 최혜국, 아세안 무역협정, 한-아세안 무역협정에 따른 관세율 및 원산지 기준 확인이 가능

분류	기관 사이트명	URL
관세율	관세법령정보포털 3.0	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통합무역정보서비스	www.tradenavi.or.kr
	캄보디아 관세청	www.customs.gov.kh/

14) 관세법령정보포털(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1. 통관 및 검역

1) 통관 및 검역 절차

□ 통관 관련 부처

- 수출입허가신청
 - 통관신고: 경제재무부 세관소비총괄과
 - 수출입허가: 상무부 산하 CAMCONTROL
 - 원산지증명: 상무부 무역지원서비스총괄과

통관신고
경제재무부 세관소비총괄과(GDCE, General Department of Customs and Excise)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홈페이지 : http://www.customs.gov.kh/en_gb/- 주소 : No. 66, Vattanac Captital Tower, 5th Floor, Preah Monivong #6-8, Norodom Blvd, Phnom Penh, Kingdom of Cambodia- 이메일 : info-pru@customs.gov.kh- 페이스북 : www.facebook.com/cambodiacustoms

수출입허가
상무부 산하 CAMCONTROL (Cambodia Import Export Inspection and Fraud Repression Depart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홈페이지 : http://www.camcontrol.gov.kh/- 주소 : #18, Kdey Takoy Village, Sangkat Veal Sbov, Khan Chbar Ampov, Phnom Penh, Kingdom of Cambodia- 전화 : +855-23-633-2339- 이메일 : ccd@camcontrol.gov.kh

원산지증명
상무부 무역지원서비스총괄과 (General Directorate of Trade Support Services Ministry of Commer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홈페이지 : https://www.moc.gov.kh/en-us/certificate-of-origin- 주소 : Lot 19-61, MOC Road (113B Road), Phum Teuk Thla, Sangkat Teuk Thla, Khan Sen Sok, Phnom Penh, Kingdom of Cambodia

□ 수입 경로

○ 주요 항만 및 공항

- 캄보디아에는 다음과 같은 4개의 주요 항만과 공항이 있음
 - 시아누크빌(Sihanoukville)항
 - 톰넵 롤로크(Tomnop Rolork)항
 - 프놈펜(Phnom Penh) 드라이포트
 - 프놈펜(Phnom Penh) 국제공항
- 시아누크빌 항구는 바다를 끼고 있는 유일한 항구로 대부분의 해상 수출입은 여기서 진행
- 이외에도 베트남, 태국에서의 육로 운송이라는 방법이 있음

○ 캄보디아 경제특구 이용 시

- 경제특구 내 원스톱서비스 사무소가 있는 경우 : 해당 원스톱서비스 사무소의 상무부 오피스에서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지불하면 원산지증명서 취득 가능
- 경제특구 외의 경우 : 상무부 본청에서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 지금까지는 나라별로 3개의 부서가 담당해왔지만 2014년 3월 상무부의 조직개편으로 상무부 무역지원서비스 총괄과 수출입부가 일원적으로 대응. 2016년 8월 26일 '온라인 원산지증명서 발행에 관한 시행령'¹⁵⁾이 공포됨. 원산지증명에 대해서는 상무부 웹사이트 참조

15) <https://gmac-production.s3-ap-southeast-1.amazonaws.com/Regulations/3198-eng.pdf>

□ 통관 시스템

- 전자통관시스템(Automated System on Customs Data - ASYCUDA)과 단일관리서류(Single Administrative Documents - SAD)
 - 캄보디아 경제재무부는 2007년 12월 26일 Prakas No. 1447을 통해 통관에 관한 시행령 실시
 - 2009년 경제재무부 산하 세관소비총괄과(GDCE)에서 통관신고서인 '단일관리서류'(SAD)와 '전자통관시스템'(ASYCUDA) 도입
 - 전자통관시스템과 단일관리서류는 무역 및 통관소속을 간소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캄보디아 리스크 관리 시스템에 의해서 현재 개봉조사를 줄이기 위해 노력 중
 - 2014년부터 세관 상무부 CAMCONTROL에 대해 절차의 간소화, 전자화, 투명화 등의 개혁에 착수하고 있으며 2018년을 목표로 E-Customs Permit, E-Payment 등 ASYCUDA 신규기능을 추가할 계획
 - 최근 검사대상 화물의 통관에 소요되는 기간이 2010년 5.9일에서 2014년 1.4일로 크게 단축됨. 또 리스크 관리 개선을 통해 세관이 현물검사 실시 화물의 비율도 2010년 29%에서 2014년 17%로 크게 감소
 - 전자통관시스템은 2017년 5월 기준으로 캄보디아 전역 72개소에서 운용되고 있으며 모든 수출입화물의 99%를 체크 중

□ 통관 절차 - 시아누크빌 항구와 프놈펜 항구의 경우

1. 필요서류 준비

- 수입업자(통관업자)는 각 항구 세관지청에 신고하기 전에 프놈펜에 있는 관세소 비총괄과(세관 본청)에서 신고가격(상업송장 가격)의 인증을 신청(인증은 1~2일 내로 종료)
- 프놈펜 신항에서의 신고에 관해서는 세관 본청에서의 상업송장 인증 신청은 필요 없지만, 원산지증명 인증은 해야 함
- 식품이나 화학약품의 경우 프놈펜에 있는 CAMCONTROL 본청에서 수입허가서 발행을 신청해야 하며, 발행된 원산지 허가서를 각 항구에 있는 CAMCONTROL 지국에 제출(수입관세 등의 총액이 300달러 이하인 경우에 이 절차는 불필요)
- 2013년부터 개시된 사전 알림 제도에 의해서 관세분류, 과세평가액, 원산지 등에 대해서 세관 본청에 사전에 알림 신청을 해두면 영업일 기준 30일 이내(과세평가액에 대해서는 90일 이내)에 회신을 얻을 수 있음
- 관세에는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VAT등록증, 세무등록증, 타 부처 발급 수입허가증(필요한 경우) 등이 필요. CAMCONTROL에서는 매매계약서 제출 요구

2. 물품 도착 후 절차

- 선박회사는 도착 후 SAD와 함께 세관신고 서류(총 9통의 적하목록과 선하증권)를 세관에 제출
- 도착 절차를 거친 후 세관 담당자는 물품 반입을 승인하고, 적하목록과 선적물을 비교하며, 포장 및 밀봉 상태를 확인

3. 전자통관 시스템(ASYCUDA) 입력에 따른 수입신고서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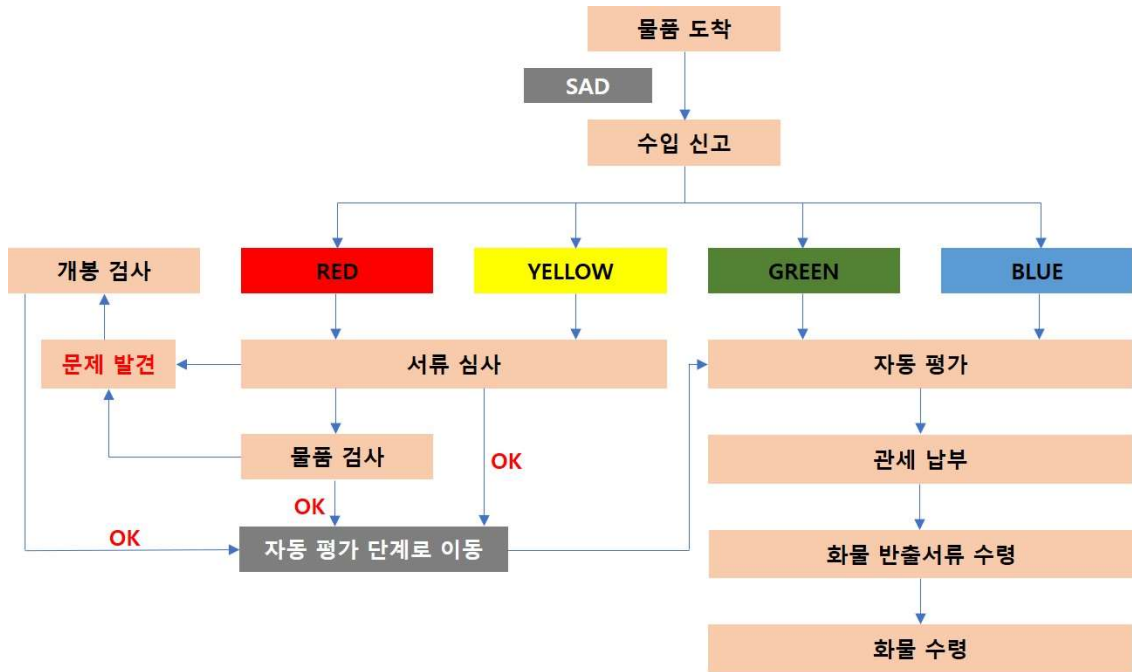
- 수입업자(통관업자)는 각 항만 세관지청에서 ASYCUDA에 수입물자 정보 등을 입력하고 SAD를 작성
- 현재 각 항만의 세관지청에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직접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인 DTI(Direct Traders Input) 활용 추천
- 수입업자(통관업자)는 SAD 및 첨부서류(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VAT 등록서, 세무등록증, 타 부처 발급 수입허가증) 등을 각 항구 세관지청에 제출

- 또한,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선하증권과 CAMCONTROL에서 발행한 원산지허가서를 CAMCONTROL 각 항만 지국에 제출
- 물품의 FOB 가격이 4,000 US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조사보고서(Report of Finding) 작성

4. ASYCUDA에 의한 분류 및 검사

- 세관 심사팀(Audit Team)은 수입 신고인이 제출한 신고서와 서류 상호간의 일치 여부 및 세액 결정의 정확성 등을 심사
- ASYCUDA에 따라 SAD는 위험 정도에 따라 4개의 색깔(Red Lane / Yellow Lane / Green Lane / Blue Lane)로 구분
- 청색 및 녹색의 경우: 원칙상 서류심사와 개봉검사 생략. 단, 통관 후 서류심사 혹은 사후심사 대상이 될 수는 있음
- 노란색의 서류심사를 요하며, 빨간색은 서류심사와 CAMCONTROL에 의한 개봉검사를 동시에 요함. 세관은 평가 기준을 확인하고, 수입면허 / 샘플 회수 / 밀수 기록 등의 특별 요구 사항을 표시해서 전달
- 개봉심사는 세관과 CAMCONTROL에 의해서 공동으로 심사되는 경우가 많음. 또한 서류심사에서 문제점이나 의문점이 제기된 경우 검사관에 의한 질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음
- 또한 판정의 결과에 상관없이 원칙상 모든 수입 컨테이너화물은 X선 스캔검사 대상. 특별한 이상이 없다면 관세 등의 납부가 이루어짐. 화물에 문제가 있다면 일시적으로 해당 화물은 계류
- 세관 신고서 제출 서류
 - 송품장 및 포장 명세서
 - 운송 서류 (선하 증권 / 항공화물운송장 / TRUCKING CHARGE)
 - 적하목록
 - 라이선스 또는 허가
 - 원산지 증명서
 - 보험 및 증명서
 - 기타 관련 문서

그림 3.1 통관 절차



자료: 캄보디아 관세청

4.1. 검사 중 문제 발생 시

o Query Desk

- 신고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화물 검사 중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SAD는 SAD 상태가 "query"로 표시
- 이 경우 신고인은 직접 Query Desk에 방문하여 문제상황을 확인한 후 해당 상황이 종료된 후 다음 절차로 진행 가능
- 위의 조치가 이행되고 합의가 이루어지면 세관원은 SAD에 서명하고 검사 및 정산 결과 또는 GDCE의 결정에 따라 검사 결과를 업데이트하면 SAD는 GREEN으로 재라우팅됨

o 컨테이너 스캐닝

- 컨테이너 스캐닝은 SAD 신고서 심사와는 독립적으로 진행

5. 관세 및 수수료 지불

- SAD 서류심사가 종료되면 관세 및 부가가치세(화물에 따라서 특별세가 과세된다) 가격 결정

- ASYCUDA 시스템에 해당 건에 대한 관세, 내국세, 수수료 등 notice를 받을 수 있음
- 수입자(통관업자)는 은행 창구에서 현금/은행보증서(bank guarantee)로 세관 수납과(accounts section) 혹은 프놈펜 소재 재무부에 관세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각 항구 관세지청에 제시해 화물반출서류를 수령
- 행정명령상으로는 세관신고수수료(Customs Procassing Fee: CPF)는 컨테이너(20피트 이상) 개당 6만 리엘, 그 이외의 화물은 건당 4만 리엘
- 현재 ASYCUDA에 의한 전자신고와 SAD 매뉴얼이 병용되고 있어서 SAD 세관신고수수료 1만 5,000리엘도 같이 지불
- 세관에서는 시간외 수수료 및 관세검사장 이외의 검사수수료에 대해서 간소하고 명확한 요금을 적용하기 위한 규칙을 검토 중

※ CAMCONTROL 화물검사요금

○ 일반화물

- 제3자검사료: 0.75달러/톤
- 화물검사료: 25만 리엘(약 62.5달러)/컨테이너(20피트 이상)

○ 농산물 등의 경우

- 화물검사료에는 할인요금 적용. 예를 들면 쌀은 2만 5,000리엘
- 시하누크빌 항구, 프놈펜 신항, 기타 국경의 경우 컨테이너 스캔검사비용은 민간의 요구에 의해 20피트 컨테이너의 경우 20달러, 40피트 컨테이너의 경우 32달러로 조정(2018년 7월 기준, Prakas No. 316 on amendment on Cargo Scanning Fee)

6. 화물 인도

- 관세 납부 후, 세관 및 세관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된 관세, 세금 및 수수료의 세부 사항을 설명하는 Cargo Release Note를 발행
- 화물 개방 서류에 각 항만 관세지청의 서명을 받은 화물을 인도받음
- 항만 창고에는 45일(공항의 경우 30일) 이내에 보관이 가능하지만 45일을 넘긴 경우 CIF 가액의 0.1%가 1일당 부과. 3개월이 지나면 관세법 제55조에 의해 화물은 폐기 혹은 매각 처분

□ 드라이포트 및 베트남 국경을 경유하는 경우

○ 드라이포트에서의 절차(2012년 기준)

- 하누크 항만에 도달한 화물 중 15% 정도는 프놈펜 등지의 드라이포트에서 통관

a. 수입자는 세관총괄과 본부에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수입허가증(필요한 경우), 관세면제허가증(필요한 경우) 등의 서류를 제출하고 그 후 드라이포트 세관지청장에게 제출

※ 화물을 드라이포트에 수송하기 위한 허가는 세관총괄본부로부터 드라이포트 운영자에게 주어짐. 승인된 수송신고서 4부는 시하누크빌 항구 세관에 보내지고 등록, 날인. 등록을 마친 4부의 수송신고서 중 3부는 드라이포트 운영자에게 되돌아감

b. 화물 도착 시 운송업자는 적하리스트와 선하증권을 세관과 창고운영자에게 제출. 운송업자 혹은 수입자는 시하누크빌 항만세관에 보증, 담보를 공탁. 세관은 정보를 세관총괄본부에 팩스로 송부함과 동시에 필요에 따라 화물과 동행

c. 드라이포트에 수송된 화물이 포트에 도착할 때 해당 포트 운영자는 세관에 3부의 수송신고서를 제출

※ 세관등록 후 1부는 수송업자에게 되돌려주며 남은 2부는 기록을 위해 보관

d. 화물 대조와 현물조사가 실시되며, 문제가 없다면 화물을 수령. 리스크 평가방침에 의해 화물 일부를 무작위로 검사하는 경우도 있음

○ 특별통관절차 - 베트남 국경을 거치는 경우

- 2008년 9월 11일 경제재정부 시행령 No.734 경제특구에 대한 특별통관절차 적용

- 베트남 국경 근처 맨하튼 경제특구나 타이센 경제특구에서도 공장 내 심사 및 검사가 실시된 컨테이너가 봉인되면 국경이나 베트남 호치민 항구에서 다시 개봉되는 경우는 없음

2) 통관 및 검역 시 유의사항

□ 캄보디아 식품 및 농산물 수입 규제

- 대부분의 식품과 농산물의 경우 CODEX 기준을 따르지만 여전히 체계가 미비한 상태
 - 자국 내 식품 위생 관련 이슈가 끊이지 않아 식품 위생 및 품질 관리 입법 절차 진행 중
 - 캄보디아에는 자체 규정이 많이 존재하지 않으며, 살충제 잔류물, 음식 첨가물, 음식 오염물, 음식 내 가축 관련 약품 잔여물 또한 CODEX로부터 일반적인 규정을 채택

□ 검역 제도

- 대부분의 식품과 농산물의 경우 CODEX 기준을 따르며 검역 기준은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않은 상태
- 수출입 시에는 합의된 ASEAN 기준을 사용하며, 식품안전법은 UN식량농업기구 (FAO)의 지원으로 최초의 식품안전법 초안 작성 시작
- 검역 심사는 통관 절차 시 관세 납부 후 세관 보세창구 구역 실사에서 제품의 품질 및 수량 검열 실시
 - 선적서류와의 일치 여부와 관세 납부의 적정성 검토
 - 품질검사는 CAMCONTOL에서 담당하며 red lane 판정을 받은 경우 개봉 검사를 진행할 수 있음

3) 관세 및 FTA 정보

□ 캄보디아 수출입 세율 체계

- 캄보디아 수출입 세율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님
 - 관세는 종가운입(ad-valorem rate) 적용
 - 와인과 음료에는 10%에서 25%의 특별소비세가 적용되며, 주류와 담배에는 3%의 공공조명세(public lighting tax)가 적용되는 등 특별세가 있음
 - 부가가치세는 일률적으로 10%이며 모든 수입품목에 적용
- 주요 관세 구조는 2001년에 변경되었으며 관세 범위는 최대 12개에서 4개로, 관세율은 최대 120%에서 35%로 낮춰짐
- 한국의 경우 한-ASEAN FTA에 따른 FTA 협정세율 적용

표 3.1 캄보디아 수출입 세율 체계

유형		관세율	
수입			
세율 및 품목			
1	관세	0%	의약품, 교육용 교재
		7%	주요 제품 및 원자재
		15%	자본재, 기계 및 장비, 현지 사용 자재
		35%	완제품, 주류, 석유화학제품, 자동차, 귀금속
2	특별세	0%, 4.35%, 5%, 10%, 15%, 20%, 25%, 30%, 45%, 50%	
3	부가세	0.02US달러/리터(정유), 0.04US달러/리터(디젤)	
4	부가가치세	10% 일괄	
수출			
1	수출세	0%, 5%, 10%, 15%, 20%, 50%	

자료: 캄보디아 관세청

□ 한-ASEAN FTA

- 한-ASEAN FTA는 2007년 6월 1일에 발효되었으며, 한국산 수입물품에 대해 ASEAN 각 회원국이 부과하는 관세는 양허 유형에 따라 협정 발효와 동시에 철폐되거나 또는 인하 스케줄에 따라 순차적으로 철폐 또는 인하됨
- FTA 협정세율은 MFN 세율의 예외로서, FTA 체결국 간에는 양국 간 협상 결과에 따라 WTO 양허세율(MFN) 보다 낮은 FTA 협정세율을 우선적으로 상호 적용할 수 있음
- 한-ASEAN FTA에서는 모든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철폐 또는 인하가 이루어지며, 협정문 상의 원산지 기준 등을 충족할 경우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아 수입 물품에 대해 무관세 또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

※ 주의사항
 우리나라 수출물품이 민감 품목군에 속하고, 아세안 상대국 수입국이 해당물품을 일반 품목군으로 분류한 경우 상호대응세율에 의하여 수입상대국은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어서, 민감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기관에 사전 확인 필요

표 3.2 한-ASEAN FTA 품목군별 관세 적용 계획

품목군	
일반 품목 (Normal Trac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 1월까지 일반품목군 최소 50% 품목에 대한 관세를 0%로 인하 - 2017년 1월까지 일반품목군의 최소 90% 품목의 관세 철폐 - 2018년 1월까지 모든 관세품목의 5%를 초과하지 않는 관세품목이나 합의된 계획에 기재된 관세품목에 대해서 2012년 1월 1일까지 과세를 철폐. 나머지 일반품목군의 관세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 완료 - 2020년 1월까지 일반품목군에 대한 관세철폐 완료
민감 품목 (Sensitive Trac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감품목의 상한선은 모든 관세품목의 10% - 2020년 1월까지 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을 20% 이하로 내려야 하며, 2024년 1월까지 최종적으로 0%까지 인하해야 함 - HS 8자리 631개, HS 6단위 200개 혹은 당사국이 선택한 HS 단위의 모든 관세품목 수의 3%
초민감 품목 (Highly Sensitive Lis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S 8자리 456개 품목 - 다시 5개의 그룹으로 분류 - 그룹 A: 50%의 관세율 상한 - 그룹 B: 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의 최저 20% 삭감 - 그룹 C: 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의 최저 50% 삭감 - 그룹 D: 관세할당 부과 - 그룹 E: 관세 인하나 철폐에서 제외 <p>Cambodia shall reduce the applied MFN tariff rates of tariff lines placed in Highly Sensitive List not more than 50 % not later than 1 January 2024.</p>

자료: FTA 홈페이지(<http://www.fta.go.kr>)

표 3.3 캄보디아 HS-CODE 1806.90.10의 협정세율(2018년 기준)

HS CODE	품명	구분	관세율	원산지 기준
1806.90.10	Chocolate confectionery in tablets or pastilles	최혜국 (Most favored nation, MFN)	10%	-
		아세안 무역협정(ATIGA)	0%-All	-
		한-아세안 무역협정 (AKFTA)	기타(Other) - 0%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자료: 통합무역정보서비스 TRADENAVI(www.tradenavi.or.kr)

표 3.4 한-ASEAN FTA 주요 정보

구분	주요 내용
발효일	2007.6.1
의의	- 우리나라가 거대 경제권과 맺은 최초의 자유무역협정(FTA)로서, 총 10개 회원국에 6억의 인구를 지닌 거대시장으로 한국에게는 미국, 중국, 일본, EU와 더불어 5대 교역시장 중 하나 - 현재, 한·중·일 등과 함께 ASEAN+3, ASEAN+1 등과 같은 형태로 동아시아 경제협력을 주도 - ASEAN은 주로 저임금 기반 우회생산지나 원자재 생산국으로 인식되었으나, 1990년대 중반 부터는 고도 경제성장으로 인한 구매력 상승으로 현지 내수시장을 타깃한 투자가 확대되는 추세
원산지 증명서	- 발급기관: 관세청, 대한상공회의소 (개성공단인 경우 관세청에 한정) - 유효기간: 1년 - 사용언어: 영어 - 증명서식: 통일서식(AK) - 사용횟수: 1회 사용원칙
직접운송 원칙	- FTA에 따른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원산지 결정기준의 충족, 2) 협정당사자간 의직접운송 원칙을 모두 충족해야 함 - 따라서 대한민국에서 직접 캄보디아로 운송된 경우에만 FTA를 적용받을 수 있음(단, 지리적, 운송상의 목적으로 단순 경유한 경우는 제외)

자료: 관세청종합솔루션(www.customs.go.kr)

□ 캄보디아 FTA 특이사항

- 캄보디아 세관은 FTA 특혜관세 적용 품목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의 사후적용을 불 인정하고 있으므로, 원산지 증명서를 사전에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HS Code 2012와 2017의 차이에 대한 품목 분류 이견으로 통관에 문제가 생기는 사례가 있으므로, 수출 전에 현지 포워딩 업체를 통해 수출품목의 HS Code분류를 면 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

□ FTA 협정세를 적용 요건 및 방법

(1) FTA 원산지 기준 충족

○ 한- ASEAN FTA 원산지 기준

HS CODE(2012)	PSR
180690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또는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0402호, 제0403호, 제0404호, 제10류 및 제11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원산지물품인 것으로 한정한다.)

※ 위 HS 이하 코드는 모두 동일한 원산지기준(PSR)이 적용

(2) 직접 운송 원칙의 충족

○ 개념

- FTA에 따른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 원산지 결정 기준의 충족, 2) 협정 당사자(국)간의 직접운송 원칙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 물품인 경우에도 체약 상대국이 아닌 제3국을 경유하거나, 제3국에서 선적된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을 그 물품의 원산지로 인정하지 않음

○ 주의사항

- 제3국을 경유하여 수입 당사국으로 운송된 경우, 직접운송의 예외를 인정받기 위한 입증 책임은 특혜세율을 적용 받고자 하는 수입자에게 있으며, 제3국 경유가 지리적 또는 운송 상의 이유이며, 제3국에서 추가가공이 없었음 등을 입증함
- 입증서류로는 수출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Through B/L), 원산지 증명서 원본, 그 밖에 경유국 세관당국에서 발행한 입증서류 등이 있음. 하지만 이러한 서류들은 사후 입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제3국 경유 당시 입증 서류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함

(3) FTA 협정세율 적용방법

- o 수입신고 시 원산지증명서 및 증빙서류를 캄보디아 세관에 제출함으로써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함.
- o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음.
 1.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2. B/L(선하증권) 또는 AWB(항공화물운송장)
 3. Packing list
 4. 유효한 원산지증명서
 5. (필요 시)해당 원산지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원산지확인서 등)
- o FTA협정세율은 수입신고 시 적용받거나, 수입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한-아세안 FTA), 1년 이내(한- 캄보디아 FTA) 사후적용도 가능

2. 인증정보

1) 원산지증명서(필수)

□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 FTA 원산지증명서란, 수출물품이 FTA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수입국에서 FTA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통관 시 제출하는 서류. 발급방식에 따라 기관발급 또는 자율발급으로 구분

구분	증명방식	증명 주체	증명서 유효기간	증명 서식	언어	사용횟수
FTA	기관증명	한-아세안 - 세관/상공회의소	1년	양국 간 통일증명 서식	영어	1회 사용원칙 (분할 가능)

※ 아세안 정부기관 - 캄보디아 :상무부
자료: TradeNAVI


- 물품을 생산한 나라 또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서로, 수출 물품이 해당 원산지에서 재배·사육·제조·가공된 것임을 증명
- 초콜릿의 경우, 한-ASEAN FTA에 의해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를 반드시 준비
 - 2017년 9월 1일부로 캄보디아 관세청이 한-ASEAN FTA 전자 원산지증명서 인정
-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신청방법
 -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 대한민국 세관, 대한상공회의소
 -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필요서류
 - a) 수출신고필증 사본(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 또는 이에 갈음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b)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 c) 원산지확인서(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서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로 한정)
 - d) 원산지소명서
 - 처리기간
 - a)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공휴일·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다) 이내

- b) 위 제1호 외의 경우: 3일(공휴일·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다) 이내
- 신청방법 : 전자적인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함. 위의 필요서류를 구비한 후, 아래의 주소에 접속하여 신청
- a) 세관 - 유니패스(<http://www.unipass.co.kr/>)
- b) 대한상공회의소 무역인증서비스센터(cert.korcham.net/)

표 3.5 캄보디아 초콜릿 수출 시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방법


구분	주요 내용
증명서명	원산지 증명서
발행기관	관세청, 상공회의소
성격	필수인증
대상국 및 품목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발급 대상 협정확인(ex) 캄보디아의 경우, 한-ASEAN FTA) - 상대국의 HS 6단위별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 상대국의 HS 최종단위별 협정세율 확인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신고수리필증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증명서발급기관이 수출사실 등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 원산지확인서 - 원산지소명서 - 원산지소명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정보 및 국내제조확인서 (증명서발급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
발급시기 및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 시기: 한-ASEAN FTA의 경우 선적 전, 선적 시, 선적 직후 - 신청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
비용	무료
소요기간	2일
유효기간	1년
사용언어	영어

2) ISO 22000 (Food Safety Management System)¹⁶⁾

ISO 22000	
인증/검사명	ISO 22000
인증 설명	식품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식품위해요소를 사전 예방 관리하는 자율적인 식품 안전관리 시스템. 고객 만족을 위해 식품안전경영시스템 수립 및 운영할 수 있는 국제적인 인증
발행/검사기관	한국품질보증원, AFAQ EAQA Korea
성격	권장
제출서류	- 심사 신청서 - 사업자 등록증
비용	신청비 60만 원 (심사비는 산정 기준에 따라 상이)
소요기간	직원 수에 따라 인증 심사일수 상이
유효기관	3년
인증절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등록 신청서 작성 2) 인증 심사 1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시스템 매뉴얼이 ISO 22000에 준수하는지 확인 - 수행상태 및 인증범위 확인 - 시정조치 계획에 동의하는 보고서 발행 3) 인증 심사 2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방법, 관리, PRP 등 인증범위 내 프로세스 활동에 대한 샘플 심사 - 시스템 규격의 준수 정도 문서화 - HACCP 계획 및 절차서, 직원 능력 및 지식 테스트 4) 한글 및 영문 인증서 발행 5) 사후 심사관리 정기적으로 실시

16) 한국품질보증원(www.kqa.co.kr), NQA(www.nqa.com), Biz Care(biz-care.kr)

3) HACCP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HACCP	
인증/검사명	HACCP
인증 설명	식품의 제조, 가공, 공정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미생물 오염 등 위험을 방지하고 영업자에 의한 식품의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함
발행/검사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성격	권장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 영업자, 종업원 또는 농업인의 교육훈련 수료증 사본 1부 - 최근 3개월간의 생산 또는 영업실적 - 위생관리 프로그램 및 1개월 이상의 운용실적 1부 - 업종별 또는 품목별 자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및 1개월 이상의 운용실적 1부
비용	수수료 20만 원
소요기간	1년 전후
유효기관	3년
인증절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HACCP 시스템수립을 위한 생산, 기술, 설계, 연구 및 개발 등의 부서 대표자를 포함한 프로젝트팀 구성 2) 제품의 구성, 보관, 포장상태, 사용방법 등 나타내는 제품 기술서와 생산공정 흐름도를 작성 3) 생산공정의 각 단계와 도출된 유해요소를 파악하여 유해요소 발생 가능성과 발생 시 결과의 심각성에 근거해 위험을 평가 4) 식품안전을 위해 관리가 요구되는 중요 관리점(CCP, Critical Control Points) 선정하여 식품안전을 위한 일반 관리 사항(POA)를 파악 5) 모든 유해요소의 관리가 기준치 설정대로 충분히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한계치 설정 6) 모니터링을 하며 서류기록을 한 뒤 지속적인 개선조치

3. 라벨링

라벨링 정보 개요

❖ 초콜릿 라벨링 예시

① 인기 제품(말레이시아산)



② 한국산



자료: 현지조사원

❖ 캄보디아 포장식품 라벨 의무 표기사항

(PRAKAS on Cambodian Standard CS 001-2000 Labelling of Food Product)

번호	항목
1	제품명/식품명
2	생산자, 유통자 정보
3	원산지
4	중량, 부피 등의 정보
5	제조일자
6	제품번호
7	유통기한
8	성분
9	조리방법 또는 사용 방법(필요 시)
10	관할 당국에서 승인한 허가 또는 인증(필요 시)

□ 라벨링 규정

- 라벨이나 마크는 모든 수입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캄보디아 수입을 위해서 관련 부서에 라벨 인증을 받아야 함
- 산업 관광 에너지부(The Industrial Standards Bureau of the Cambodia of Ministry of Industry, Mines and Energy)는 라벨링 요구사항을 2000년에 공표한 식품 라벨 규정 'Prakas on Cambodian Standard CS 001-2000 Labelling of Food Product'에 명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 필수 표기사항은 제품명, 생산자, 유통자 정보, 원산지, 중량, 부피 등의 정보, 제조일자, 제품번호, 유통기한, 성분, 조리방법 또는 사용 방법 (필요 시), 관할 당국에서 승인한 허가 또는 인증(필요 시) 등
- 라벨링 규칙 준수 여부에 대한 당국의 관리가 허술해 제대로 된 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제품도 다수 유통되고 있음

표 3.6 캄보디아 라벨 표기사항 상세

번호	항목	설명
1	표기 언어	크메르어(필요에 따라 영어, 프랑스어, 중국어 등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으며 외국어는 크메르어보다 글자 크기가 작아야 함)
2	제품명	제품명은 제품의 본질을 나타내는 이름이어야 하며 캄보디아 식품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름을 사용해야 함. 흔히 사용되지 않는 독특하거나 새로운 이름일 경우 소비자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정확한 명칭을 사용해야 함
3	성분	단일 성분으로 구성된 제품을 제외하고는 각 성분의 중량, 부피, 함유량이 높은 순서대로 정확한 성분 명칭을 표기해야 함. 복합 성분이 사용된 경우 함유된 비율 순으로 정확한 명칭을 밝혀야 함. 특정 성분별 세부 규정은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에 사용된 모든 비타민과 미네랄 종류를 표기할 것 - 다음의 성분이 포함되었을 경우 반드시 표기할 것 : 염화나트륨/소금, 질산나트륨, 질산나트륨/질산칼륨, 글루탐산모노나트륨/MSG, 그 외 사용된 감미료 - 다음의 성분이 포함되었을 경우 반드시 표기할 필요는 없음 : 가공보조제로 사용된 식품첨가물, 흔히 상용되는 착향료
4	순중량	액체 식품은 리터(l), 밀리리터(ml), 혹은 밀리그램(mg)으로 부피 정보가 표기되어야 하고 반고체 혹은 점성이 있는 식품은 무게 또는 부피가 표기되어야 함
5	생산 및 유통업체 정보	생산업체 및 유통업체의 회사명과 주소를 기재해야 함
6	원산지	식품의 원산지를 규정에 따라 명확하게 표기해야 함. 해당 식품이 제2국을 거쳐 가공되었고 그 과정에서 본질이 바뀌었을 경우 가공된 국가를 원산지로 표기해야 함
7	제품번호 (Lot Number)	식품의 제조 정보 및 제조업체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정확한 제품번호를 표기해야 함
8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은 다음과 같이 표기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 production date *** / The packaging date *** - The expiry date *** / Best before (end) **
9	사용방법	식품 사용법을 기재할 필요가 있을 경우 라벨에 표기해야 하며 사용조건 혹은 장소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함
웹사이트	http://www.cambodiaip.gov.kh/DocResources/fd2f5db5-5b83-4886-b471-40c33d9ec20d_c786a043-b88d-4f64-9429-60a330efdc5f-en.pdf http://www.wipo.int/wipolex/en/text.jsp?file_id=223120#LinkTarget_5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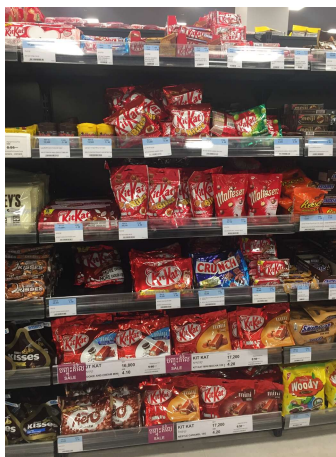
□ 리벨링 샘플 정보

❖ 라벨링 샘플 사진



제품명	Kit Kat(Creamy chocolate)
제조사	Nestle Asean(Malaysia)
가격	1.60달러
중량	35g
원재료	설탕, 우유 고형분, 밀가루, 코코아버터, 코코아메스, 식물성 지방 및 유지(팜유, 팜, 시어버터), 포도당 시럽, 유화제(E322 콩 레시틴 및 E76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코코아 파우더, 안정제(중탄산염나트륨, 탄산칼슘), 소금, 바닐린, 허용된 식품첨가제, 모든 첨가물은 식물성이거나 합성. 우유, 클루텐, 콩과 같이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식품 있음. 땅콩과 트리넛을 가공하는 공장에서 생산
유통기간	1년
판매 확인 매장(방문일)	2018. 7. 23

제품 진열대



제품 특징	현재 이 브랜드 자체만으로도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을 정도이며, 원산지를 일본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브랜드 신뢰도도 매우 높은 편. 크런치한 식감이 소비자들을 사로잡음
-------	--

자료: 현지조사원

4. 위생요건

□ 식품첨가물 규제

- 대부분의 식품과 농산물의 경우 CODEX 기준을 따르며 검역 기준은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식품 첨가물의 최대 사용 레벨은 CODEX 기준을 준수
 -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에서 권장하는 Specifications of Identity and Purity를 준수¹⁷⁾
 - 안정성 면에서, 식품 첨가물을 GMP¹⁸⁾에 따라 생산, 보관, 운송 및 취급을 통해 (개별 기준 만이 아닌) 전체 규격에 부합시킴으로써 식품 등급의 품질을 달성¹⁹⁾

표 3.7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에서 권장하는 Specifications of Identity and Purity에서 정한 식품 첨가물

제품	식품첨가물	기능	최대 허용량 (mg/kg)
05.1.4 초콜릿과 초콜릿 제품	아세실팜칼륨 ACESULFAME POTASSIUM	조미료, 감미료	500mg/kg
	알리탐 ALITAME	감미료	300mg/kg
	적색40호 ALLURA RED AC	색소	300mg/kg
	포스파티드산 암모늄염 AMMONIUM SALTS OF PHOSPHATIDIC ACID	유화제	10,000mg/kg
	아스파탐 ASPARTAME	조미료, 감미료	3,000mg/kg
	밀랍 BEESWAX	윤반제, 유화제, 광택제, 안정제, 증점제	GMP
	식용색소청색 제1호 BRILLIANT BLUE FCF	색소	100mg/kg
	뷰틸 하이드록시아니솔 BUTYLATED HYDROXYANISOLE	산화방지제	200mg/kg
	뷰틸 히드록시톨루엔 BUTYLATED HYDROXYTOLUENE	산화방지제	200mg/kg
	칸델릴라납 CANDELILLA WAX	윤반제, 유화제, 광택제, 증점제	GMP
	캐러멜-3 CARMEL III - AMMONIA CARMEL	색소	50,000mg/kg

17) 'DRAFT FOR COMMENTS as of 23 May 2017', World Trade Organization(members.wto.org), 2017.

18) GMP란 Good Manufacturing Practice의 약자로서 식품·의약품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품질면에서 보증하는 기본조건으로서 우수식품·의약품의 제조·관리 기준임

19) 「Codex Alimentarius-General Standard for Food Additives」 (www.fao.org), 2017.

캐러멜-4 CAMEL IV - SULFITE AMMONIA CAMEL	색소	50,000mg/kg
카나바 왁스 CARNAUBA WAX	산도조절제, Anticaking agent, Bulking agent, Carrier, Glazing agent	5,000mg/kg
카로틴 CAROTENES, BETA-, VEGETABLE	색소	100mg/kg
카로티노이드 CAROTENOIDS	색소	100mg/kg
피마자유 CASTOR OIL	고결방지제, 운반제 유화제, 광택제	350mg/kg
클로로필, 클로로필린, 구리혼합물 CHLOROPHYLLS AND CHLOROPHYLLINS, COPPER COMPLEXES	색소	700mg/kg
시클라메이트 CYCLAMATES	감미료	500mg/kg
포도껍질추출물 GRAPE SKIN EXTRACT	색소	200mg/kg
인디고틴 INDIGOTINE (INDIGO CARMINE)	색소	450mg/kg
네오탐 NEOTAME	조미료, 감미료	80 mg/kg
인산염 PHOSPHATES	산도조절제, 유화제, 유화제염류, 습윤제, 금속조절제, 안정제, 증점제	1,100mg/kg
폴리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POLYGLYCEROL ESTERS OF INTERESTERIFIED RICINOLEIC ACID	유화제, 안정제	5,000mg/kg
폴리소르베이트 POLYSORBATES	유화제, 안정제	5,000mg/kg
식용색소적색 제102호 PONCEAU 4R (COCHINEAL RED A)	색소	300mg/kg
사카린 SACCHARINS	감미료	500mg/kg
표백셀락 SHELLAC, BLEACHED	광택제	GMP
소비탄지방산에스테르 SORBITAN ESTERS OF FATTY ACIDS	유화제, 안정제	10,000mg/kg
수크랄로스 SUCRALOSE (TRICHLOROGALACTOSUCROSE)	감미료	800mg/kg
식용황색 제5호 SUNSET YELLOW FCF	색소	400mg/kg

	타르타르산염 TARTRATES	산도조절제, 산화방지제, 조미료, 금속조절제	5,000mg/kg
	삼차부틸하이드로퀴논 TERTIARY BUTYLHYDROQUINONE	산화방지제	200mg/kg
	토코페롤 TOCOPHEROLS	산화방지제	750mg/kg

자료: 「Codex Alimentarius-General Standard for Food Additives」 (www.fao.org), 2017.

[참고 문헌]

■ 참고 자료

1. 「Country Insight Report Cambodia August 2018」, Dun & Bradstreet, 2018.7.13
2. 「Cambodia: Exporter Guide」, USDA, 2015.10.23
3. 「Cambodia Socio-Economic Survey」, Cambodia National Institute of Statistics, 2017.10
4. 「General Population Census of Cambodia 2008」, Cambodia National Institute of Statistics, 2009.9
5. 「Handbook on customs clearance」, General Department of Customs and Excise of Cambodia, 2015.10
6. 「캄보디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한국수출입은행, 2017.12
7. 「Codex Alimentarius-General Standard for Food Additives」(www.fao.org), 2017.

■ 참고 사이트

1. 관세법령정보포털 3.0(unipass.customs.go.kr)
2. 세계 HS 정보시스템(www.customs.go.kr)
3. FTA 포털(http://www.fta.go.kr)
4. International Trade Centre(www.trademap.org)
5. 트레이드내비(www.tradenavi.or.kr)
6. 한국무역통계진흥원(www.trass.or.kr)
7. 유로모니터(www.euromonitor.com)
8. 캄보디아 관세청(http://www.customs.gov.kh)
9. 캄보디아 CAMCONTROL(http://www.camcontrol.gov.kh/)
10. CIA World Factbook(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cb.html)
11. EU Directorate-General for Trade
(http://trade.ec.europa.eu/doclib/docs/2006/september/tradoc_113362.pdf)
12. euroasiaresearchexperts(www.euroasiaresearchexperts.com)
13. 캄보디아 온라인 쇼핑몰(delimarket.asia)
14. 미국수출조연구(www.export.gov)
15. 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USAID)(www.usaid.gov)
16. Food Export USA(www.foodexport.org)
17. The Trends Of The Cambodian Millennial Consumer' , 2017.7.27.(www.b2b-cambodia.com)
18. 페이스북, 캄보디아에서 영향력은?' , 뉴스브리핑 캄보디아, 2018.5.4.(www.nbcambodia.com)
19. 'e-commerce in Cambodia' (digitalrain.agency)
20.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www.jetro.go.jp/world/asia/kh/trade_05.html)

2018 농식품 해외시장 맞춤형조사

No. 1805-09

품 목 : 초콜릿(Chocolate)

국 가 : 캄보디아(Cambodia)

보고서 기획 및 작성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발 행 일 2018

발 행 처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식품수출정보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27

02-6300-1119 <http://www.kati.net>

자료문의 aT수출정보부

02-6300-1119

- 본 자료는 한국농식품유통공사 농수산물수출정보 사이트 www.kati.net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자료집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본 자료집의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제, 복사는 법에 저촉됩니다.